주가	환율	금리
-31.87	+1.30	-0.01
1,382.11 (코스피지수)	944.90원 (원/달러)	4.80% (3년만기 국고채)

코스닥지수	662.14	(-13.16)
다우(15일)	11,428.77	(+47.78)
나스닥(15일)	2,238.52	(-5.26)
닛케이	16,158.42	(-328.49)
엔-달러 환율(도쿄 17:00기준)	110.01엔	(+0.40)
유로 달러 환율	1.2816달러	(-0.0033)
3년만기 회사채	5.07%	(-0.01)
콜금리	3.96%	(보합)

대주·삼능·우미 등 광주·전남 건설업체

수도권 '건설지도' 바꾼다

아파트·유통상업·벤처집적시설 등 앞다퉈 진출

광주·전남지역을 비롯한 지방 건설업체들이 수도권에서의 사업 확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난 2000년 이후 대주건설, 삼능건설, 우미건설, 중흥건설 등 광주·전남 업체들의 수도권 진출이 활기를 띠면서 기존 대형 업체도 진입하기 힘든 요지를 선점하는 등 지방업체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1990년대 영남권 건설업체들에 이어 최근 4~5년새 광주·전남 업체의 수도권 진출이 러시를 이루면서 아파트를 비롯한 각종 건설사업에 대한 참여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광주·전남 업체들이 수도권 공략에 주력하는 것은 지방에 비해 미분양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다 지속적인 택지개발로 인해 유망 사업지 확보 기회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주건설은 최근 경기 용인 공세지구의 복합단지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세 복합단지는 용인 기흥구 공세동 일대 15만9천870평에 들어서며, 7만5천여평의 주거단지와 9천여평의 유통상업시설, 3만2천여평의 벤처집적시설 등이 조성된다.

아파트의 경우 새 브랜드 '피오레'(Fiore)를 내걸고 공세지구 2천여가구를 비롯 8월 경기 오산 갈곶동 299가구, 11월 안성 공도지구 1천가구, 12월 인천 검단지구 864가구 등을 분양한다.

삼능건설도 지난 2004년 경기 부천에서 전국 최대규모의 주상복합타운인 '위브 더 스테이트'를 공급한데 이어 최근 경기 화성에서 '마도유통공구상가' 를 분양했다. 또 서울 강서구 염창동 등 세 곳에서 '스페이스 향'에 대한 공급에 나서는 등 분양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우미건설은 지난해 11월 화성 동탄지구 1천316세대 분양에서 1순위 마감을 기록하는 등 수도권에서의 실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지건설은 아파트 브랜드 '더원'(The 1)을 앞세워 본격적인 수도권 공략에 나섰다. 이지는 지난 3월 김포신도시 장기지구 605가구 공급으로 수도권 주택시장에 진출한 뒤 판교신도시 721가구, 동탄신도시 542가구 등을 공급했다.

중흥건설은 올해 하반기 경기 호평지구 484세대와 경기 양주 덕정지구 314세대 분양이 예정돼 있다. 또 내년 하반기에는 인천 청라지구 700세대 공급에 나서는 등 수도권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호반건설은 지난해 7월 본사를 서울로 옮긴 이후 지난해 말 경기도 용인 구성지구에서 308가구를 분양하는 등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왼쪽부터 이숙자씨, 이준호사장, 홍성현씨, 정충기씨.

대한화재 홍성현·정충기씨 판매왕

신인왕엔 이숙자씨…연도대상 시상식

대한화재(대표이사 이준호)는 15일 서울 역삼동 리츠칼튼호텔에서 '연도대상 시상식'을 가졌다.

총 80여명의 수상자와 가족, 임직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연도대상 시상식에서 전북지점 익산영업소의 홍성현(45)씨가 대리점 부문 판매왕상을, 충청지점 충청영업소의 정충기(49)씨가 설계사부문 판매왕상을 각각 차지했다. 신인왕상에는 북부지점 의정부영업소의 이숙자(60)씨가 영예를 안았다.

이날 판매왕상을 수상한 홍씨와 정씨는 2005회계연도에 각18억원과 15억원의 매출을 기록해 최고의 영예를 차지했고, 신인왕상을 받은 이씨는 3억2천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준호 사장은 "회사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는 대한화재의 오늘이 있기까지는 연도대상 수상자 이하 전 영업가족의 열정적 활동과 부단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담양 죽제품 다모였네

롯데백화점 광주점(점장 박호성)은 18일까지 식품매장에서 젓가락, 타원형 바구니, 죽부인 등 담양산 죽세 공예품을 판매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부산 술 '천년약속' 나주찹쌀로 빚는다

연간 30t 재배 계약

부산지역 주류회사인 ㈜천년약속이 올해부터 매년 나주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무농약찹쌀을 주원료로 사용한다.

지난해 부산에서 열린 APEC 공식 건배주로 선정된 '천년약속'의 제조업체인 (주)천년약속(부산·대표 김성열·43)은 16일 전남대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 남녘들영농조합법인(나주·대표 정상진·42)과 무농약찹쌀 재배계약식을 가졌다. 〈사진〉

이번 계약으로 남녘들영농조합은 2만평에서 생산하는 30t 전량을 시중가보다 35% 비싼 가격(1억~1억4천만원)에 납품키로 했다.

(주)천년약속 김성열 대표는 "농림부의 주선으로 전남대가 기술지원하고 품질을 보증한 나주의 찹쌀을 술의 원료로 사용하게 됐다"면서 "영·호남 화합차원에서도 이번 계약은 아주 의미있는 교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년약속'은 세계 최초로 누룩이나 효모 대신 상황버섯 균사체로 찹쌀을 발효시켜 만든 술로, 혈전용해 및 암예방 등 약리효과를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태기자 jtlee@

외국인 차익실현 5일째 '팔자' 행진

코스피지수 1400선 붕괴

코스닥도 13.16포인트 빠져

외국인의 차익실현이 5일째 지속됨에 따라 코스피지수가 1,380선으로 내려갔다.

16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31.87포인트(2.25%) 하락한 1,382.11로 마치며 1개월여 만에 1,400선 아래로 내려갔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소폭 오름세로 개장했으나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세지면서 사흘째 급락했다.

원자재값 부담에 따른 인플레이션, 미 금리인상 우려로 글로벌 증시가 약세를 지속하고 있는데다 삼성전자 등 주요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을 이용한 차익실현 압력 등으로 외국인 매도세가 세졌다.

외국인은 5일째 '팔자'행진을 지속하며 3천535억원 순매도했다. 이들은 전기전자, 철강 및 금속업종을 각각 1천79억원, 961억원 순매도했다. 반면 기관과 개인은 각각 667억원, 1천808억원 순매수했으나 외국인 매물을 소화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코스닥지수도 전날보다 13.16포인트(1.95%) 내린 662.14로 마감했다. 지수가 670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3월31일 이후 한 달 반만에 처음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나주 남평농협 친환경농업 선도

남평농협은 16일 친환경농업기술의 선진화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설한 친환경농업기술대학 55명의 수료식을 가졌다.

학생들은 토양관리법과 친환경농자재 활용법 등 친환경 재배기술, 친환경농산물 유통론, 친환경농산물 인증방법, 미래 한국농업정책 등 다양한 지식과 현장교육을 마치고 이날 졸업을 맞았다.

이 같은 맞춤형 교육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선정한 전국 12대 브랜드와 올해 전남 최우수쌀 10대 브랜드에 포함된 '왕건이 탐낸 쌀'을 탄생시킨 원동력이 됐다.

또 남평농협은 가칭 친환경농업사업단회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6일 전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과 친환경농업에 대한 산학협력 조인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남평농협은 친환경농업기술대학에서 배운 재배기술과 전남대의 영농컨설팅을 접목, 특화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